데스크칼럼

아이고 무등산이여

정현아

경제부장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이라 등산 제안이 잇따른다. 가파른길 오르내림에 잼병인지라 정중한 거절도 한두번. 간곡한 청에 못이겨 결국 반강제로 따라 나선다. 동반자들은 무등산 입석대·서석대까지 가는 대신 증심사 언저리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출발. 무등산 오르는 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다. '팔공산의 기가 약해져 무등산으로 기를 받으러 왔다'는 경상도 산악회원들의 수다 등 왁자지껄이다. 높이 오르지도 않은 산길이지만 등산로는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닳고 닳았다. '사람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을 눈으로 보고 왔다.

20년 전쯤 전남의 한 군수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저는 재임 기간 동안 개발사업을 일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개발과 성장을 주장하지만 저희는 개발을 하지 않고 아껴두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정말 그 진가를 알아보고 제 발로 찾아오는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땅으로 남겨둘 요량입니다." 정말로 그 군수는 이렇다할 개발사업 없이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떠나갔다. 후임 군수들은 아차 늦었다 하면서 뒤늦게 관광사업 등을 벌이며 주변 자치단체를 뒤쫓았지만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 군은 인구는 해마다 줄고 키우는 소가 사람보다 많은 어중간한 땅으로 남아있다.

최근 미국에서 기업을 하는 호남 출신 사업가들이 광주를 방문했다. 모처럼 고향에 왔다며 광주시에 한나절 관광 일정을 요청했다. 시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다행히 그쪽에서 무등산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해준 덕에 고민은 해소됐지만 다음 단계는 어떻게 무등산에 오를지가 또 걱정. 한 분이 어린 시절 타봤던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을 기억해 냈고 일행은 결국 그걸 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980년에 운행을 시작해 45년이나 된 모노레일에 외지인을 태우는 것이 맞는지 망설였다. 그래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탑승을 결행해 큰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됐다. 외지인들의 무등산 오르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찝찝함은 남았단다. 이게 무등산 맛보기의 정답이자 최선인가.

유럽 여행길에 스위스 알프스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걸어서가 아니고 열차를 타고. 푸른 초원에 야생화가 핀 평지에서부터 3000미터 산정상까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차는 잘 올라갔다.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봉우리 관람과 전망대에서의 컵라면은 잊을 수가 없다. 189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오경장이 있던 때 그들은 알프스 산을 깎고 굴을 뚫어서 이 산악열차를 건설했다. 주민 편의와 전쟁용 대피소를 겸해 건설했는데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을 끌어 모아 수익을 올리는 '캐쉬 카우-돈 낳는 암소' 역할을 하고 있다.

솔직히 광주의 관광은 답이 없다. 별의별 아이디어에 노력을 다해보지만 이렇다할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와 더불어 '노잼도시', 재미없는 도시로 일컬어지던 곳이 대전시였다. 그런데 대전은 대형 유통업체가 줄줄이 생기고 최근 성심당이라는 제과점이 전국적인 '빵지' 성지로 급부상하면서 노잼도시 오명을 벗었다.

광주의 상징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단연 무등산이다. 외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무등산 경험하기를 희망한다. 멀리서 바라보는 산의 전경이 아니라 무등산에 발길을 디뎌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 길에 미리 등산화와 등산복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무등산에 발을 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저 무등산을 바라보며 군침만 삼키다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광주시장 몇 명이 조용히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도 나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덮어버렸단다. 어설프게 아젠다로 띄우려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등산개발 반대운동이 일어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짐작된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용역을 하는 것의 적절성 등이 관심이었지만 나중에는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용역 결과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나왔다. 모처럼 광주시의회가 이른바 광주의 '뜨거운 감자'인 무등산 케이블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도 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노잼도시라 비판하면서도 무등산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하는 광주의 이중적인 정서가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최근 도발적인 무등산 케이블카 용역결과 발표가 논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불이 붙었나 싶었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성냥불 같다는 느낌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기믄 기고 아니믄 아닌' 광주의 근성대로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에 화끈한 불이 한번 붙어보면 어떨까.

기고

교류도시, 주민의 일상으로 들어가다

김진옥

광주 남구청 총무과장

도시는 각자 고유한 문화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서로 다른 도시들이 만나 손을 잡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오늘날 지자체 간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단순히 형식적인 협력관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실익이 되는 실질적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교류도시를 맺고 행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는 연례방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 속 협약서와 웃음은 남아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자매·우호도시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 체감하지 못한다. 진정한 도시 간 교류는 행정의 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남구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위해 꾸준히 시도해 왔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구 홈페이지에 자매·우호도시들의 농특산물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홍보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각 도시의 특산품 판매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돼 주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먹거리 접근성을 제공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자원 홍보와 판로 확대라는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시대 흐름에 부합해 지속 가능한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연결은 오프라인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바로 '광주 남구 자매·우호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장터는 나주시, 장흥군, 순창군, 영광군 등 각 지자체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도심 한복판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거래 장터는 단순 판매 행사를 넘어, 교류도시 간 관계를 체험형 연결방식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는 판매 창구를 확보하고, 주민은 신뢰가능한 생산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도농 상생 교류 협력의 구체적 교류의 장인 셈이다. 또한 남구는 자매·우호도시 관광시설 할인 혜택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남구민은 9개 도시에 위치한 36개 관광시설에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혜택은 구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정보 노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매도시 주민이기에 할인받는다'는 일상 속 경험은 주민들에게 지자체 간 관계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되며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 간 교류는 단순한 방문이나 상징적인 행사로는 그 의미를 다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나누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팔며, 일상 속에서 작은 혜택을 누릴 때 주민은 '자매도시가 내 삶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도시 간 협력은 종이위의 약속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체감형 관계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같은 조건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연결이 더욱 중요하다.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연결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교류 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도시는 제각기 다른 길을 가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같은 미래를 고민하는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도시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협약서보다는 혜택으로, 행사보다 일상으로. 그것이 도시가 친구가 되는 길이다.

취재수첩

은둔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송태영

경제부 차장대우

최근 온화한 날씨와 추운 날씨를 오가면서 기온 변화가 크게 나고 있다. 오는 22일은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첫 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小雪)이다.

이렇듯 겨울철 한파가 다가오면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사회공헌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처음으로 '외로움'에 대해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소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38.2%로 나타났다. '자주 외롭다', '가끔 외롭다'의 비중은 각각 4.7%, 33.5%로 나타났다. '외롭지 않음' 응답자는 '별로 외롭지 않다'(43.5%)와 '전혀 외롭지 않다(18.3%)를 포함해 61.8%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며, 50대 이상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0~59세 41.7%, 65세 이상은 43.4%로 조사됐다.

특정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평소 교류하는 사람도 없다고 응답한(사회적 관계망 없음) 비중은 전체의 5.8%로 나타났다.

그중 사회적 관계망이 없고 외롭다고 응답한 사람은 3.3%,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사람은 0.9%다.

생애 단계별로 보면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서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65세 이상(고령층)이 4.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40~64세(중장년층) 3.6%, 19~34세(청년층) 2.0% 순이었다.

휴대전화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족·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취약계층, 은둔 청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점차 사라지는 이웃 간 따뜻한 교류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독자투고

수능 수험표 인터넷 올렸단 낭패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수험생을 노린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수험생 할인 등을 미끼로 내세운 스미싱 문자 발송이다.

대표적인 스미싱 문자를 사용한 사기 문자 메시지 유형으로는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 방심할 경우 순간적으로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슷한 큐싱 범죄도 주의하길 바란다. 큐싱 범죄란 악성코드 또는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돼 있는 QR코드 촬영를 촬영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법은 간단하다.

수능생 상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험표를 SNS 또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는 것이다. 또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출처가 불명확한 미확인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돼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면 '시티즌 코난' 등을 활용해 악성 앱 설치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조치를 해 제2의 피해를 신속히 막아야 한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사설

첫 관광도로 '백리섬 섬길' 관광명소 되길

여수 백리섬 섬길이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지정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를 말한다.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35개 노선 중 10개 노선이 현장평가 대상에 올랐고 이중 '여수 백리섬 섬길'을 포함한 6개 노선이 지정됐다.

'백리섬 섬길'은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 간 10개 섬, 백리 길인 약 39.2㎞ 구간을 사장교·현수교·아치교·거더교 등 총 11개의 다양한 공법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한 명품 해양관광도로를 일컫는다. 이 명칭은 전남도가 공모해 지은 새로운 도로명이다.

이 중 개통된 백야도~팔영대교 6개 해상 교량 23㎞ 구간이 이번에 지정됐으며 현재 공사중인 화태~백야 구간 4개 교량과 화태 대교는 준공 후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곳은 연륙·연도교를 따라 펼쳐지는 남해안의 다도해 절경과 섬 문화, 해양 생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안도로로 바다 위를 건너는 다리들이 이어지는 독특한 관광도로다. 섬과 섬을 따라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해안관광 루트로 평가되고 있다.

전남도와 국토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앞으로 이번에 지정된 노선에 상징성을 부여한 전용 도로 표지(이정표) 설치와 현재 구축 중인 관광도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도로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무엇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여수시에게는 이번 지정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스토리 텔링,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도로가 아닌 섬과 섬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교량 박물관인 이곳이 전국적인 관광·휴양의 명소가 돼 지역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광주 '서구아너스' 복지사각 해소 효과크네

광주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의 왕성한 활동이 눈에 띈다.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1년만에 회원 103명, 누적 후원금 35억원을 달성한데다 기업인, 의료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동참하며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현재 서구청 1층에 설치된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고액 기부자가 1억원 이상 4명, 5000만원 이상 9명, 3000만원 이상 90명이나 될 정도로 서구를 대표하는 민관협력 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임은 단순한 고액 기부 모임이 아닌 민관협력형 복지 네트워크 성격이 강하다. 매월 주제별 나눔사업을 통해 공공 지원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청년 장학금 지원, 장애인 부부 결혼식 후원, 폐지 수거 어르신 쉼터 지원 등 매월 주제가 있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첫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15세대(52명)를 선정해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씩 총 2600만원을 후원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100세대에 온누리상품권 20만원씩 지원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110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했고 5월에는 '오월애(愛) 찾아온(溫) 깜짝산타' 행사를 통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후원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했다.

10월에는 청소년과 함께 '독도 원정대'를 꾸려 교과서 밖 역사여행을 추진했으며 이달에는 학교 밖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꿈 발견 수학여행'을 지원한다고 한다.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복지의 12달을 채우는 생활형 나눔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서구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위기 가구 등 4대 분과 체계를 새롭게 구성, 아너스 회원들이 관심 분야별로 직접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의 복지 틈새를 해소하고 있는 이 모임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10	논설실	370-7060
경제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원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